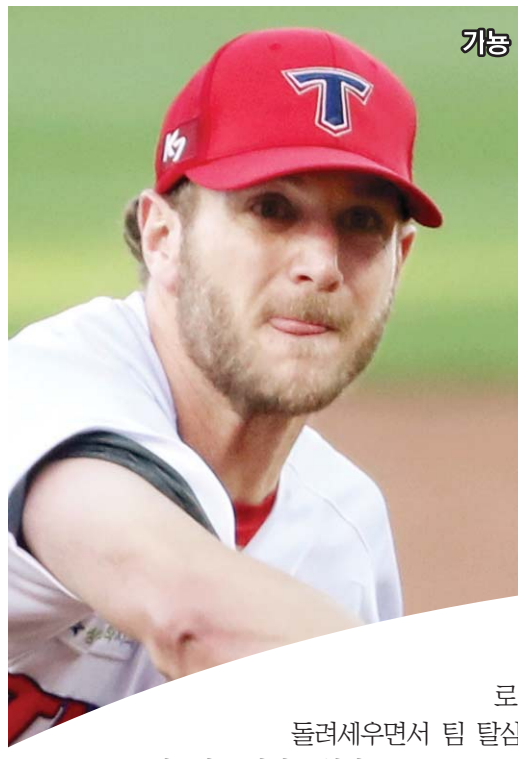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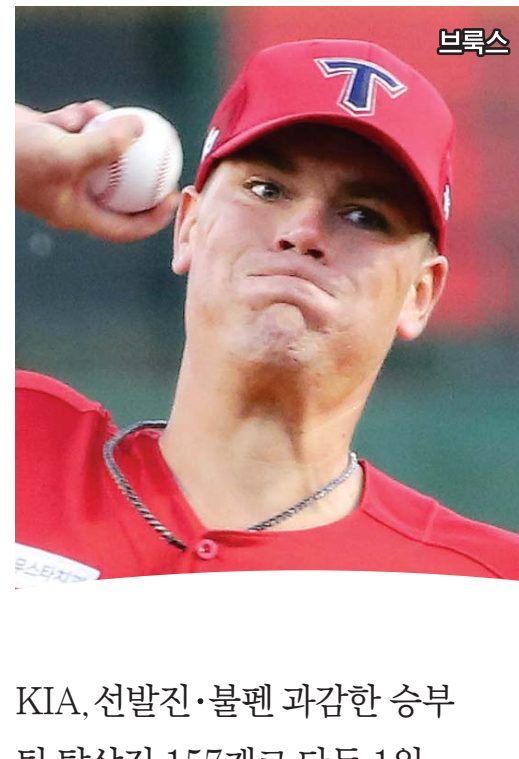
K·K·K... 이것이 'K 마운드' 스타일



양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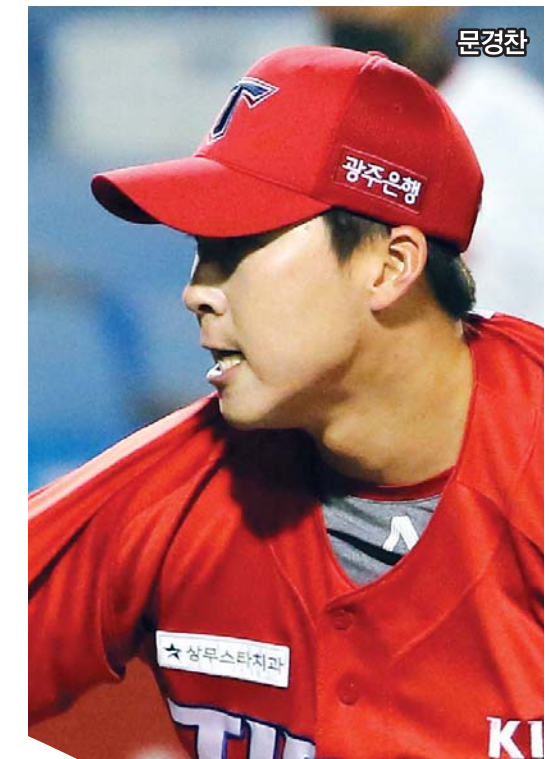
강



브룩스



전상현



문경찬

“차라리 맞아라.”

KIA 타이거즈 투수들이 과감한 승부로 ‘탈삼진 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KIA는 안정된 선발진과 박준표-전상현-문경찬으로 구성된 막강 필승조 ‘박전문’을 더해 마운드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발진의 퀄리티스타트 행진으로 눈길을 끄는 마운드 순위표에서 KIA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바로 탈삼진 부문이다.

KIA는 26일 경기까지 157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로 돌려세우면서 팀 탈삼진 1위를 지키고 있다.

147개의 탈삼진을 뽑은 한화 이글스가 KIA의 뒤를 잇고 있다. KIA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탈삼진 최하위 KT(109개)와는 48개 차다.

탈삼진 1위지만 볼넷(53개) 최소팀 3위다. 그만큼 타자들에게 걸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진과 볼넷 비율을 따지면 KIA가 압도적인 1위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도 탈삼진은 늘었고 볼넷은 줄었다. 지난해 KIA는 976개의 탈삼진(전체 5위)을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탈삼진수는 6.8개, 올 시즌은 8.3개로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3.5개(지난 시즌 5.04개)였던 볼넷 개수는 2.8개로 줄었다.

새 외국인 투수 드류 가능이 경기당 평균 7.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32개의 NC 구장모에 이어 전체 2위(31개)에 올라갔고, 브룩스와 양현중은 각각 23개와 16개의 탈삼진을 수확했다.

볼넷진도 탈삼진수에 가세해 ‘K군단’의 위력을

KIA, 선발진·볼펜 과감한 승부 팀 탈삼진 157개로 단독 1위 전년비 평균 6.8→8.3개로 늘고 볼넷은 3.5→2.8개로 줄어

서재웅 코치 “차라리 맞아라” 빠른 승부로 상대 타이밍 뺏기 적중

가능, 경기당 평균 7.8개

박준표·전상현·문경찬도

탈삼진 35개 합작 ‘볼펜 힘’ 과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준표가 올 시즌 9이닝을 소화하면서 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고, 전상현도 11이닝을 던지며

14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문경찬도 9이닝 12탈삼진으로 거침없다.

볼넷을 지양한 빠른 승부가 ‘K군단’의 핵심이다. 탈삼진을 의식한 승부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빠르게 승부에 들어가면서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모습이다.

26일 KT전에서 ‘KKK’로 8회를 정리한 전상현은 “탈삼진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의식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피하지 않고 빨리 승부를 보고 끝내려는 생각으로 던진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너무 완벽하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 둘씩 공이 빠지고 그랬다. 최대한 투구수를 최소화해서 이닝을 끝내려고 한다”며 “빠른 카운트에서 빨리 승부를 들어가는 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수들의 과감한 승부에는 서재웅 코치의 ‘차라리 맞아라’ 코칭도 한몫 하고 있다.

전상현은 “코치님께서 우리가 안 좋은 경기할 때는 볼넷이 많다고 하셨다. 맞아도 되니까 자신 있게, 과감하게 승부하라고 하신다. 투수들도 자기 공

을 던지려고 한 다”고 이야기했다.

문경찬도 “일단 던지고 본다”며 자신감 있는 피칭을 이야기했다.

문경찬은 “아직 밸런스가 좋은 편은 아니다. 자신있게 던지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회전수는 잘 나오는 것 같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다. 밸런스가 잡히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자신감과 빠른 승부로 타자들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KIA 투수들. 시원시원한 피칭이 탈삼진 1위라는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민상, 9년 기다린 친형과 투·타 승부

KIA-KT전 7회 타석서 플라잉볼로 물러나... KBO 15년만의 형제 대결

“출가분합니다.”

KIA 타이거즈 유민상이 9년을 기다린 승부였다.

유민상은 지난 26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앞선 7회초 1사 1-2루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와 볼넷을 기록했던 유민상의 4번째 타석이자 KBO 역사에 두 번째 기록된 타석이다.

유민상이 상대한 투수는 바로 자신의 친형 유원

상이었다.

유민상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15년 만의 형제 투타 대결이 이뤄졌다.

지난 1995년 9월 5일 투수 정명원(태평양)과 타자 정학원(쌍방울)이 각각 마운드와 타석에 서면서 KBO리그 1호 형제 투타 대결이 펼쳐졌다.

형 유원상이 2006년 한화 1차 지명 선수로 프로에 뛰어들 뒤, 유민상이 서울고 연세대를 거쳐 지난 2012년 두산 유니폼을 입으면서 ‘형제 야구인’이 탄생했다. 아버지 유승안 전 경찰야구단 감독

까지 더하면 ‘야구인 가족’이다.

형제 야구인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기다렸던 두 사람의 맞대결 순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만큼 그라운드에서 처음 형을 마주한 유민상은 ‘출가분함’을 이야기했다.

“9년을 기다렸다”는 유민상은 “출가분했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첫 맞대결을 이야기했다.

결과는 형의 승리였다. 볼 2개를 지켜본 유민상은 3구째 헛스윙을 한 뒤 다시 볼을 끌라냈다.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5번째 공을 맞이한 유민상은 헛차게 스윙을 했지만 빗맞은 공은 유격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홈런을 치려고 했다”고 언급한 유민상은 “홈런 정도는 쳐야 형을 놀릴 수 있다”며 다음 승부를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루키’ 박민, 경기 중 투구에 맞아 안와골절

KIA 타이거즈의 ‘루키’ 박민이 왼쪽 안와골절 부상을 당했다.

박민은 27일 익산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6회 네 번째 타석에서 한승지의 공에 얼굴을 맞았다.

바로 익산 병원에서 후송된 박민은 검진 결과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박민은 조선대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았다.

야탑고 출신의 박민은 KIA가 기대하는 내야의 ‘특급 기대주’다.

청소년 국가대표 유격수로도 활약한 박민은 지난해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KIA의 호명을 받고,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또 다른 기대주 홍중표와 함께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윌리엄스 감독의 조련을 받은 그는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도 쌓았다.

원래 자리인 유격수는 물론 팀의 약점인 3루 자리에 서도 3루수 수업을 받는 등 KIA의 내야미래를 짊어지는 선수다.

박민은 26일 퓨처스 경기에서는 프로 첫 홈런도 기록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코로나에 날아간 183억원

MLB 사무국, 개막 연기에 새 연봉 지급안 마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올해 연봉 중 4분의 3이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다.

토론토 지역지 ‘토론토선’의 릭 롱기 기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의 연봉 삭감안에 따라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의 올해 연봉(2000만달러) 중 약 1500만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LB 사무국은 이날 새로운 연봉 지급안을 마련해 선수노조에 제시했다. 선수별 연봉에 따른 ‘차등 삭감’이 골자다.

코로나19 여파 탓에 시즌 개막이 연기된 상황에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입장 수입 감소를 이유로 구단 수익의 절반을 선수들에게 연봉으로 지급하겠다고 애초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지급하되 선수들의 연봉을 기초로 차등 삭감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고액 몸값 선수들의 연봉은 대폭 깎고, 저액 연봉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덜 삭감하는 형태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의 제프 파산 기사가 공개한 연봉 지급안을 보면 류현진이 해당하는

2000만달러(약 247억원) 연봉 선수는 515만달러(64억원)로 연봉이 줄어든다.

2500만달러(약 309억원) 연봉 선수는 605만달러(약 75억원), 3000만달러(약 370억원) 연봉 선수는 695만달러(약 86억원), 3500만달러(432억원) 연봉 선수는 784만달러(약 97억원)로 연봉이 높을수록 삭감 폭이 커지는 구조다.

올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간 8000만달러(약 987억원)에 계약하며 팀 내 ‘연봉킹’에 오른 류현진은 자칫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연봉을 받는다.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7월 첫 주에 시즌을 개막해 팀당 82경기 정도 치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예년보다 경기 수가 절반이나 줄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받더라도 원래 연봉의 약 절반만 가져간다.

협상 마감 시한은 따로 없지만, 미국 독립기념일인 현지시간 7월 4일에 맞춰 정규리그의 막을 올리려면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6월 7일까지 연봉 지급안과 코로나19 검사를 포함한 건강·안전 대책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노르웨이·케냐서 ‘따로 또 같이’

세계육상연맹 2000m 달리기 동시 출발 이벤트

세계육상연맹이 노르웨이 오슬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동시에 출발해 2,000m를 달리는 이색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든 새로운 장면이다.

세계육상연맹은 27일 ‘팀 잉게브리그센과 팀 체루이요트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2,000m 대결을 한다. 2020년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을 알리는 이벤트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개막을 미뤘던 세계육상연맹 주관 다이아몬드리그가 6월 12일 오슬로에서 시즌 개막 대회를 치른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터라, 오슬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부분 유럽 선수다.

오슬로 다이아몬드리그 기획자는 아프리카 선수가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온라인 중계’에서 답을 찾았다.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니, 공식 경기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 경기 규정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다.

이색 이벤트에서는 6월 12일 같은 시간에 오슬로에서 유럽 선수 5명,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선수 5명이 2,000m를 달린다. 각 팀 상위 3명의 기록을

합산해 승패를 가린다.

육상 팬들의 눈길을 끄는 선수들이 이벤트에 참여한다.

노르웨이 육상 형제자 ‘팀 잉게브리그센’의 주축이다. 헨릭, 필립, 제이컵 형제가 2,000m를 함께 달린다. 헨릭은 2012년 헬싱키 유럽선수권대회 남자 1,500m에서 우승했고, 필립은 2016년 암스테르담 유럽선수권 금메달, 2017년 런던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이컵은 2018년 베를린 유럽선수권에서 1,500m·5,000m를 석권하며 ‘유럽 중장거리 신성’으로 떠올랐다.

나이로비에서 뛰는 선수는 세계적인 스타다.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1,500m 우승자 티모시 체루이요트와 이 종목 2017년 런던 세계선수권 챔피언 엘리자흐 마냥고이(이상 케냐)가 ‘팀 체루이요트’로 댄다. 개인 기량은 아프리카 팀이 앞서지만 팀별 상위 3명의 기록을 합산해 승패를 정하는 터라 바람을 막아주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등의 ‘팀 플레이’도 중요하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번 이번 이벤트를 ‘임파서블 게임즈(Impossible Games)’라고 명명했다. 코로나19 극복의 의지가 담긴 대회다. /연합뉴스